

임플란트 '자가 치아골 이식' 각광

질환 전염 위험 없고 빠른 치유에 비용 저렴 조선대 치과병원 김수관교수팀 전국 첫 시술

인공치아 이식술인 임플란트(Implant)시 치아골(뼈) 이식에 자가치아(환자 치아)를 이용하는 '자가치아골 이식'이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김수관 교수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시술되고 있다.

임플란트 수술시 인공치아 표면이 완전히 뼈속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 주변에 부족한 뼈를 재생하는 골 이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임플란트 골 이식은 뼈 이식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자가골 이식'은 뼈 이식재로 자기 자신의 뼈를 이용하는 것이며, '동물골 이식'은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추출한 뼈를 사용하고, '이종골 이식'은 사람 이외의 동물에서 추출한 뼈를, '합성골 이식'은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뼈를 이용하는 시술이다.

지금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뼈 이식으로 '자가골 이식'이 꼽혔다. 이는 수술시 자신의 뼈에서 이식뼈를 추출하는 만큼 이식 후 경과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엉덩이뼈 등의 이식뼈를 추출해야 하는 부가 수술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환자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이종골은 전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있으며, 합성골은 생체 적합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김수관 교수팀이 시술중인 '자가치아골 이식'은 환자 본인의 뼈를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치아를 활용한 만큼 유전적, 전염적 위험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가치아골 이식 절차와 과정=먼저 기능이 더해 뼈는 이빨이나 사랑니 등을 생리 식염수에 냉장보관한다. 이후 일주일에서 걸쳐 이를 분쇄해 치아분분과 같은 무기질, 치조골의 골

라겐과 동일한 유기질 등과 함께 처리해 본인 뼈와 동일한 새로운 기능의 골분말 형태 이식재를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치아골 분말 이식재는 주사기에 담겨져 보관된다. 특히 이 이식재는 심은 보관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병원이 보관하거나 환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주사기에 들어 있는 분말형 이식재는 5년 이상 보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 뼈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의학적 효과 및 사회 비용 절감=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아를 완벽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치아뼈의 이식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뼈로 치아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는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빠른 치유를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채취량이 제한적이고 이식 후 뼈의 일부가 녹는 결절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뼈 추출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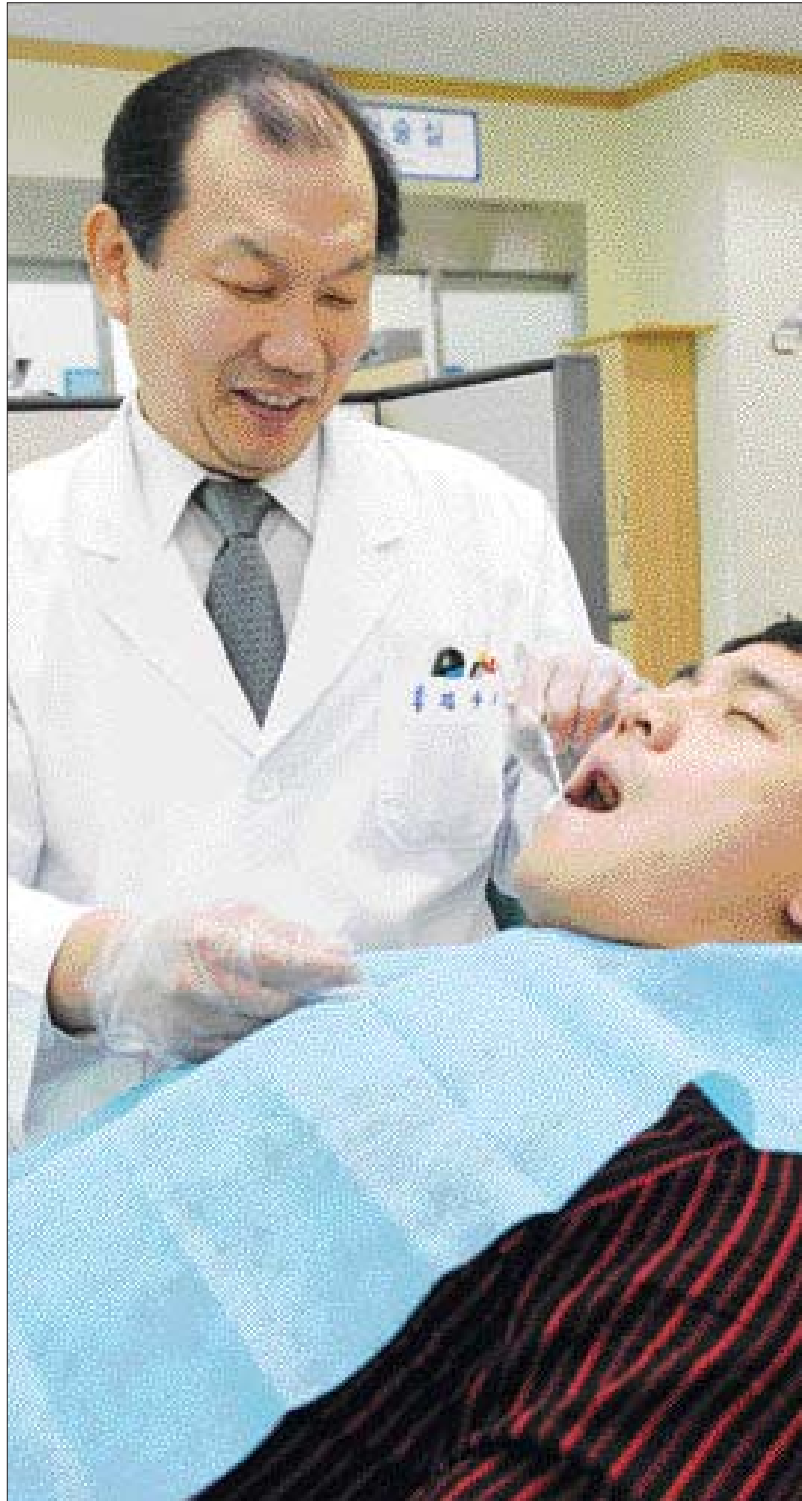
하지만 자가 치아를 사용하면 별도로 뼈를 구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면역적, 기능적으로도 우수하다.

또한 자가치아골 분말은 깨진 이빨이나 기증 및 형태상 문제가 있는 이빨의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술은 김수관 연구팀이 15년 전부터 연구해 온 결과이며 2003년과 2004년 국내 특허를 취득한 후, 올해 초 임상실험 성공을 거두고 학회에 발표했다.

더욱이 이 시술은 대부분이 수임산인 이종(동물 추출) 또는 합성골 이식재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있으며, 연구와 시술이 활성화될 경우 임플란트 비용을 내릴 수 있어 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사항은 조선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062-220-3815)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병원 김수관 교수가 환자 이빨을 이용해 만든 자가치아골 분말 이식재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간호사들이 미숙아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전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확충

호흡기·인큐베이터 갖춘 중환자 베드 28개로 늘려

전남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최근 병상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산과 불임 시술 등이 증가하면서 신생아 중 미숙아의 수가 현저히 늘고 있다.

출산을 저하가 국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미숙아 후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숙아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아직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지정, 정부지원금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신생아중환자실에 투입해 센터를 확대 개·보수했다.

이로 인해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는 ▲호흡기와 인큐베이터 등을 갖춘 중환자 베드 18개에서 28개로 늘렸으며 ▲중환자 베드도 11개에서 50개로 대폭 확충했다.

실제 집중치료센터 개소 하루 전인 지난 15일 전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를 치료할 중환자 베드가 남

지 있지 않아 출산을 코앞에 둔 산모를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산모는 31주 밖에 안된 세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전남대병원 소아과는 신생아 중환자 베드가 모두 차 있어 인근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심지어 전북 원광대병원까지 수소문했으나 신생아 중환자 베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지역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운송 도중 분만 등을 고려해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이 산모 및 가족과 동행했다. 신생아 중환자 베드 1개 때문에 또 다른 응급환자를 기다려야 하는 의료진과 산모, 가족 등이 수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최영룡 전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장은 "생명이 위독한 미숙아를 중환자 베드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는 의료인으로서 심한 자책감이 시달려야 했다"면서 "이번에 개소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가 지역의 산모와 미숙아에게 안정감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루 포도주·맥주 한 두잔 골밀도 높여

美 터프츠 대학 터커 박사 연구

포도주나 맥주 하루 한 두잔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캐서린 터커 박사는 프래밍햄 건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29~89세의 남성 1천182명, 폐경여성 1천289명, 폐경 전 여성 24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맥주나 다른 술을 하루 한 두잔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골밀도가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그러나 술을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남성은 한 두잔 마시는 사람에 비해 골밀도가 오히려 3-5% 낮았다.

한편 여성은 포도주나 다른 술을 2잔 이상 마시는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골밀도와 척추의 골밀도가 5~8% 높았다.

적당히 마셨을 때 골밀도를 높여주는 술 종류는 남성은 맥주, 여성은 포도주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남성은 맥주를, 여성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터커 박사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무병원은 손·어깨 전문병원

신경·혈관 수술 전문의 2명 영입 대학병원 수준 진료 시스템 갖춰

상무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어깨·손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나섰다.

컴퓨터를 비롯해 손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업무가 늘면서 이들 부위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무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상무병원은 일반 병원에 한 명도 배치하기 힘든 손과 발의 신경 및 혈관 수술 전문가 2명을 영입, 광주·전남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손 신경 이식 수술을 도입함은 물론 손·발의 신경 및 혈관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상무병원은 사지 절단 등 손발의 혈관 및 신경에 이상이 있을 때, 사고로 인해 머리·배·가슴 부위의 동시 손상이 발생할 경우 흉부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 등의 동시 진료도 용이해졌다.

이중 김중석 정형외과 원장은 전남대병원에서 어깨·손 부분 전임의와 어깨·손 부

분 임상교수,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센터 어깨·손 부분 임상교수 등을 거쳐 어깨 수술 및 관절경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남대병원 어깨·손 부분 임상교수를 거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획득한 박용철 원장은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급에서는 유일한 관련 분야 전문의다. /채희종기자 chae@

세계 4대 뮤지컬의 진수 최고의 걸작 한국어로 만나는 최초의 '캣츠' 한국공연



놀랍다! 완벽하다! 황홀하다!

CATS

2009. 4. 21 (화) - 26 일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061-220-0541 1588-0766

티켓마포 옥산타워 티켓링크